

마을 園林의 景觀意味에 관한 研究

—全南 咸平 靈光地方을 中心으로—

*김 학 범 · **장 동 수

*연암축산 원예전문대학 관상원예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Landscape Meaning of Village Grove

—In the case of HAMPYUNG and YOUNGKWANG in CHONRANAMDO Province—

*Hak-beom, Kim · **Dong-soo, Jang

*Dept. of Ornamental Horticulture, Yeon Am J. Colleg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City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andscape meaning of village grove and then combines this interpretations with landscape planing if it is possible. So we chose four village groves among seven village groves in HAMPYUNG & YOUNGKWANG Province(CHONRANAMDO, KOREA).

The reason why we did it is that the meaning of korean groves is divided into three types(Confucianism, Feng-shui, Native belief etc.) according to original planting reasons. This study was done mainly by both referring to the regional character of those types and examining the nature of grove meanings.

As a result of this process, we are able to find three demensions which were explained by physical-ecological, user's behavioral and cultural meaning.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hysical landscape of village grove is composed with ecological meaning that is related with people's land use not only inside but outside of it. So this kind of ecological meaning is the mutual relation among physical elements of village groves, for example old high trees, surface, user's facilities, land use around a grove and soon.

2. User's behavior meaning of grove shows that it has high relation with physical dimension, for example distance and accessiblity to a grove, linkage with open space around a village and so on. User's behavior inside of grove is usually divided into three types(recreation, play, ritual services). Especially, we were able to find a tendency to have numerous people use in the case of a village grove well to preserve its ritual service.

3. Cultural meaning of grove has the holistic character which usually defines the regional theme of each village and village grove (Confucianism, Feng-shui, Native belief etc.).

So, the Landscape meaning of village grove is not only a physical shape but a certain concept existing inside of village grove. This diversified meanings existing in a grove have a direct effect on good fortune or misfortune of a village and its dwellers.

I. 序 論

우리가 景觀이라고 부르는 視覺世界는 人工적 패턴들, 문자들, 형태들 등의 등장에 따라 우리 조상들 때보다 더 한층 확장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세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과거 사람들이 봤던 것들보다 더한 어떤 의미심장한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現實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景觀”이라는 概念에서 수용할 수 있어서 景觀은 바로 다양한 視覺的 象徴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景觀에 나타난 視覺的 象徴들은 바로 意味를 전달하는 媒介物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각적 상징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인 外形의 構造와 그 내용인 意味로 구성된다. 여기서 의미란 어떤 觀念이나 主題를 나타내며, 외형은 어떤 종류의 感覺的 材料가 갖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환경에 있어서 外形이나 外觀은 物理的 形態나 그안에 활동하는 人間社會로 구성되므로, 이 外形構造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물의 역할¹⁾을 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과거의 歷史的 景觀에 나타난 의미들과 이와 관련된 의미들 혹은 상징들은 현대경관에 비해 더욱 더 고정되고 사람들내에 공유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보다 변화한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갖게 되었다.²⁾ 더욱이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과거에 비해 특이해져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인 景觀에서는 공유된 象徴들은 뚜렷하게 발견하기가 용이하지만 현대 景觀에서는 이와 같은 상징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왔다. 따라서 최근의 景觀의미 연구에 있어서 實證的 接近을 통한 많은 시도들은 의미와 같은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은” 양상의 景觀意味에 대해 소홀히 대

하는 傾向³⁾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명제처럼 景觀에 나타난 의미의 중요성은 “의미가 景觀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보다 本質的으로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景觀의미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景觀을 접할때 단순히 視覺的 現象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의미를 통해 접하기도 하고 혹은 의미가 景觀의 內容을 구성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認知過程에 나타난 景觀의 의미는 내용상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암시하게 된다.⁴⁾ 첫째로 사람들은 혼란한 세계에서 調和와 秩序를 추구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안을 제거하려는 경향 즉 피난처로서 景觀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어 景觀의 의미내에는 秩序와 調和의 內容을 갖기도 한다. 둘째로 이러한 의미들은 반드시 그 의미를 연상시키는 象徴을 갖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많은 景觀의 의미들은 그 景觀내에서 어떤 중요한 象徴的 性格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보통 景觀에서 사람들이 접하는 景觀의 지각된 의미는 사람들의 감정적 감동을 통해 景觀의 聯想的 關聯性을 내포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된 의미의 파악은 景觀내에서 지각한 물리적 속성들의 視覺的 型態를 묶어주는 이미지와 기억에 의존해서 가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研究에서 나타난 마을원림의 景觀意味는 궁극적으로 마을의 文化이며 구체적으로는 숲이라는 景觀實體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반응한 결과로서, 聯想的 作用의 方式 혹은 構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가 추구하는 目的은 위와 같은 마을원림 景觀에 나타난 의미구조를 分析 혹은 解析하여 오늘날 한국 마을園林^{5), 6)} 景觀의 현실을 理解

1) 이 규목(1988), 도시와 상징, 일지사, P.22.

2) A. Rapoport, Human Aspects of Urban Form, Pergamon Press, P.320.

3) 정 무용(1990)역, 건축환경의 의미, A. Rapoport,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대광문화사, P.22.

4) DJ. Wnvironment, Urban Living, Lomgman Scientific & Technical, P.77.

5) 윤 국병(1982), “庭苑의 解釋”, 韓國庭苑學會誌, Vol. 1, No.1, P.3에서 園은 “파일나무나 채소를 심어 가꾸는 자리로서 울타리에 의해 둘러싸인 곳”이란 뜻이고 유(동산유)는 “원의 규모가 커져서 울타리에 의해 둘러싸인 곳”이란 뜻이고 유는 園의 규모가 커져서 나라에서나 경영할 수 있는 규모로 큰 동상으로 苑과 같은 기능을 갖는 의미로서 이중 담장에 의해 한계가 지어지는 것은 苑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마을숲’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때 苑은 숲에 있어서 담의 부재와 규모 그리고 운영의 성격 뿐만 아니라 苑보다는 園이 더 이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苑보다는 園이 더 마을숲의 정의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마을숲은 庭苑과는 다르게 公園的 機能을 가는 숲이므로 苑林보다는 園林이 적당한 用語인 것이다. 더욱이 동잡지의 “고려시대 정원 용어에 관한 연구(윤국병)”에서 ‘園林’ 용어가 많이 출현한 점을 고려할때 ‘마을園林’으로 그 용어를 명명하고자 한다.

6) 김 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마을원림의 개념부분(P.17.)을 참조.

하고 이를 전통적으로 마을원림이 가져온 造景의 意義와 접목하여 밝히는데 있는 것이다.

II. 마을원림의 景觀意味

봄노래 소리 날마다 이곳 저곳 (春遊歌管日西東)
 제일 변화는 사월이던가 (第一繁華四月中)
 가을단풍은 볼수록 아름답고 (秋後丹黃看更艷)
 우거진 십리 숲 비단 병풍 들렸네⁷⁾ (森然十里錦屏風)

여기의 십리숲은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마을사람들이 직접 식재한 “마을園林”으로 마을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느 경관보다 기억속에 선명하게 존재한다. 더욱이 이 숲은 그들에게 숲이라는 物理的 景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활동했던 추억과 story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원림이 이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는 모든 것을 本 研究에서는 “마을원림 경관의 의미”로 보고자 하며 이 意味分析을 통해 그들이 지각하고 반응하는 숲의 현실을 보고자 한다.

本 研究에 있어서 마을원림 경관의 의미는 의미자체의 내용구분에 따라 物理的·生態的 意味, 利用 行態의 意味, 文化的 意味로 구분될 수 있어서 이는 空間→人間行爲→象徵 또는 意味로 연결되는 의미대상에 따른 指示의 位階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물리적·생태적 의미는 숲과 자연 또는 숲과 인공물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有用성과 適應的인 性格을 갖는 의미들로 숲을 이루는 “物理的 基盤의 生態的 意味”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생태적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性格을 갖는 利用·行態的 意味는 기본적으로 숲과 인간의 상호작용속에 형성되는 의미로 任意的인 機能的 性格을 갖는 의미들로 구성되며 직접적인 행위관찰을 통하여 보다 더 가시적으로 명증될 수도 있는 의미들이다. 마지막으로 文化的 意味는 숲과 문화 즉 숲과 人間·精神的 側面에서 기초를 하는 의미로 지역적인 場所性과 歷史性을 띠는 경향이 높으며 숲이 그 지역에 갖는 主題的 性格을 형성하

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숲경관의 의미가 전달되는 성격에 따라서는 크게 反應의 樣相(主觀的 意味)과 表現의 樣相(客觀的 意味)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여기서 마을원림의 주관적 의미는 경관시에서와 같이 느낌, 감정, 태도 그리고 평가 등과 같은 個人的 表現으로서 上層文化的인 性格을 나타내는 반면에 客觀的 意味는 土着信仰과 風水 그리고 儒敎 등과 같은 文化的 側面과 利用 行態의인 측면의 사건, 개념, 대상 등을 다루는 共同的 表現으로서 大衆文化的 性格을 나타내는 의미들로 형성된다.⁸⁾

이와같은 意味區分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한국의 마을원림중에서도 마을원림 景觀意味를 선명하게 대표해줄 수 있는 숲을 우선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서로 의미가 다른 숲들이 근거리에서 위치한 함평, 영광지역의 마을원림 7개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그 의미적 패턴이 선명한 이인정(儒敎), 초포리(風水), 원구산(土着信仰), 범성포(風水+土着信仰)등 4개의 숲을 本 研究에서는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타지역들은 이 네 지역 숲의 경관의 미를 記述하는데 필요한 부가적 예증으로 첨가하였다. 다음 表. 2는 本 研究에서 선정한 對象地의 간략한 特性分析으로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특징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조사된 意味를 그 性格과 內容에 따라 구분하여 物理 生態的 意味, 利用 行態的 意味, 文化的 意味 등의 意味區分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I. 마을 園林의 事例研究

가. 里仁亭

이인정숲은 물리적으로 亭子와 숲 그리고 연못(저수지)으로 구성된 숲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이인정은 大正마을 진입로가 나기전에는 현재와는 반대편의 齋室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나 진입로를 내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숲과 연못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숲내의 연못은 羅山面에서는 역사가 깊

7) 김학범(1991), op. cit., P.306.

8) 김학범(1991), Ibid., P.156.

表-1. 意味區分⁹⁾

區 分	對 象 內 容		性 格	方 法	解 析 方 法
物 理 的 生 態 的 意 味	숲과 자연	숲과 수목 숲과 토지 숲과 물 숲과 산	有 用 性 適 應 的	숲내 物理的 構造 의 觀察과 測定	原因과 結果 分析 (進化論的 觀點)
	숲과 인공물	숲과 공터 숲과 길 숲과 집 숲과 경작지			
利 用 的 生 態 的 意 味	숲과 형태	숲과 놀이 숲과 휴양 숲과 제례	機 能 性 任 意 性 變 化 性	行爲 觀察	場 所 的 分析 (相互關聯性)
文 化 的 意 味	숲과 문화	숲과 儒敎 숲과 風水 숲과 土着	地 域 性 場 所 性 歷 史 性	인터뷰 문헌	構造, 脈絡的 解析

表-2. 대상지 마을원림의 특성분석

區 分	숲의 物理的 構造	利 用 行 態	
		過 去 利 用	現 代 利 用
李仁亭(儒敎)	位置 : 咸平 羅山面 羅山里 大正 크기 : 길이(75M), 폭(50M) 種構成 : 왕버들, 느티, 회화, 팽 林相 : 고목위주의 노쇠목 부대시설 : 연못과 섬, 亭子, 碑閣 콘크리트 평상의자	儒敎의 祭議, 宗中의 會合 景觀詩會, 庭園 的 利用, 전통놀이, 休養的 利用	休養的 利用
草浦里(風水)	位置 : 咸平 羅山面 草浦里 射山 크기 : 길이(390M), 폭(15M) 種構成 : 팽, 개서어, 버드, 느티, 은백양, 아카시 林床 : 30년 정도의 少齡木 위주 부대시설 : 동각, 입석, 숲주변길	민속놀이 休養的 利用 祭儀的 利用	休養的 利用
元九山(土着信仰)	位置 : 咸平 羅山面 九山里 元九山 크기 : 윗숲(길이-40M, 폭-35M) 아랫숲(길이-30M, 폭-25M) 種構成 : 느티, 회화, 팽 林床 : 고목위주의 노쇠목 부대시설 윗숲 : 콘크리트 평상, 숲주변 개천 아랫숲 : 洞閣, 공동 마당, 마을 회관	休養的 利用 祭儀的 利用 어린이 놀이 마을 집회	祭儀的 利用 休養的 利用 마을 집회
法聖浦 (風水+土着)	位置 : 榮光 法聖面 法聖里 · 鎮內里 크기 : 길이(28M), 폭(40M) 種構成 : 느티, 회화, 팽, 소나무 林床 : 고목위주 부대시설 : 벤치, 씨름장, 무대, 정자, 철책, 우물, 콘크리 트평상	민속놀이 祭儀的 利用 休養的 利用	민속놀이 무대놀이 주민행사 休養的 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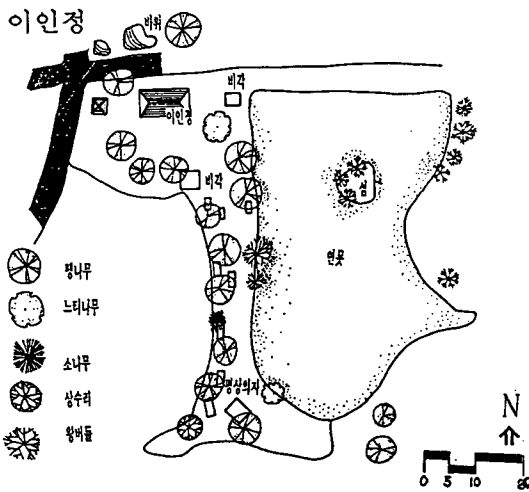
9)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意味”는 숲에 나타난 물리적 경과, 행위 등으로서 物理的 表現 뿐만아니라 구전문화, 신화적 story, 시 등 의 非物理的 表現 등을 포함하는 廣義의 概念으로 간단히 말해 “경관에 나타난 모든 표현방식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은 저수지점(250여년전) 연못으로서 이 연못을 조성하면서 쌓은 독변에 심은 나무들이 연못내의 섬과 함께 물에 투영되어 어울어지고 있다. 位置的으로 이인정과 독변의 숲은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場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視覺的으로는 높은 위치에서 羅山里 밖의 나산천과 넓은 들판을 眺望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里仁亭숲은 계곡을 끼고 물을 막은 저수지둑의 숲과 정자로 이루어진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전방으로 prospect적인 景觀을 두는 동시에 계곡사이의 마을앞을 감싸는 숲으로 이루어진 refuge적인 景觀¹⁰⁾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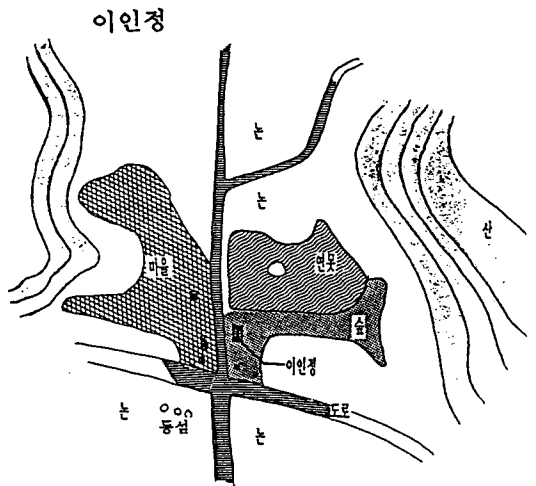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나산리는 죽산안씨가 400여년전에 부터 이곳에 거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진입도로를 따라 大正, 東新, 芳荷 등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다. 이인정숲은 이중 대정부락에 위치하며 죽산안씨들의 재실근처에 정자와 왕버들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社會·文化的으로는 당시의 儒敎의 背景下에서 출현한 마을원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이인정 내부에 편역된 명사들의 시귀를 보면 이들의 意圖를 잘 알 수 있다.

일찌기 좋은 정자 있음 알았고 (早識名亭在)
 이제야 이름난 땅 와서 노니네 (今從特地遊)
 못 물은 맑아서 거울을 연듯 (池淸開鏡面)
 나무는 늙어서 난간을 누르네 (樹老壓欄頭)
 시골 노인들 잇달아 모여오고 (野耆聯鞭集)
 들밖에서 드는 술잔 차례차례 권한다네 (山盃次第酒)
 취기가 올라오자 자리 옮겨 노니는데 (醉來移席興)
 넘어가는 저녁해 다시 잡아 두었으면¹¹⁾ (斜日更遲留)

이 시에서처럼 이인정숲은 사람들이 이인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어지는 場所이며, 현재까지 里仁亭은 그 脈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인정숲 앞에 있는 3개의 동석이 조성된 유래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儒敎的 價値觀을 알 수가 있다. “동석은 그 형태때문에 속칭 동석이 라고도 하는데 羅山里 竹山安氏¹²⁾ 家門에서 예전부터 급제를 하여 금의 환양하면 술대 대신에 동석을 만들어 가문의 경사를 기념하였다.” 이 동석의 형태는 소나무 두세주를 원형의 섬위에 심은 것으로 나산리 대



<그림 1> 里仁亭 숲 平面圖



<그림 2> 里仁亭 숲 現況圖

10) J. Appleton(1977), The Experience of Landscape, John Wiley & Sons, PP.70-73.

11) 대사헌 李彥經의 詩

12) 이 부근에서 三紅七白이 낚다는 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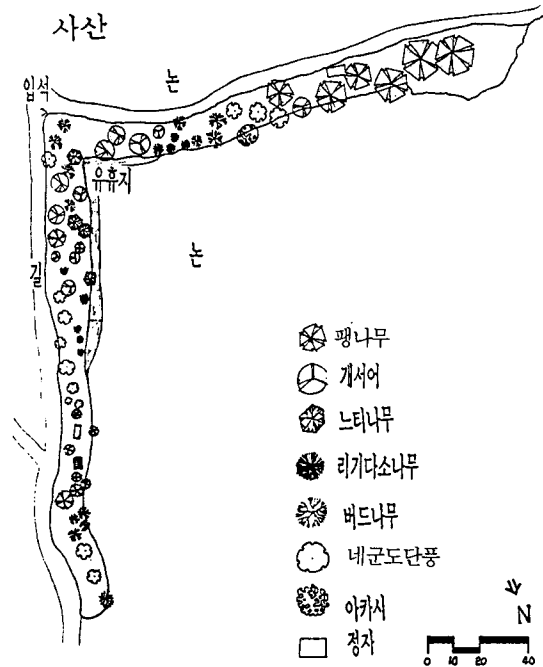
정마을앞 답에 현재 3개가 남아있다. 이와같이 이인정을 중심으로한 숲공간이용과 3개의 동선은 당시 家門과 地緣을 중시하는 儒敎的 文化的 身分의 位相으로서의 景觀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시말해서 숲을 경계로 숲내에 상층 혹은 양반층이 거주지를 형성하고 외부지역은 하층거주지로 구성되어 양반층이 외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자가 숲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인정숲은 당시의 상류주택의 사랑채와 유사한 개념으로 안채 즉 마을앞에 있어 외부시선을 차단하면서 외부인을 맞거나 외부의 경관을 감상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인정숲은 주변 사람들의 儒敎的 意味가 풍부한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비록 조성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 物理的 또는 利用·行態的인 狀況은 변했을지라도 현재에도 이 숲은 뚜렷한 文化的 意味를 구성하고 있다.

나. 草浦里

草浦里 射山마을의 숲은 그 형세가 마을을 감아도는 뒷산이 마을앞으로 연결되어 주변의 산과 숲이 마을을 감싼듯한 形을 이루어 마을웃부근에서 시작하여 마을입구인 아랫부근에까지 연결되어 산과 산을 연결한 모습이다. 사산마을 주변은 기후적으로 예전부터 건조지역으로 일정시대에 현재 불갑산 계곡의 저수지를 이용하여 일부 논에 관수하였으나 저수량이 한정되어 대부분의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인근 장성댐물이 이곳에 공급되면서 논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숲 주변에는 밭이 많아 사산은 본래 밭작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9년에 이루어진 경지정리로 밭이 거의 대부분 논으로 전환되어 쌀의 생산은 촉진되었으나 숲으로의 접근이 밭보다 더 어렵게 되었고 고목의 그늘지역에 의해 논과 숲사이에 거의 버려진 遊休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 遊休地域은 生態的으로 숲의 인접부에 밭과 논의 차이점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들 유휴지역 때문에 숲 주변의 논은 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더욱이 사람들이 쉽게 숲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산에는 숲의 物理的, 生態的 保存을 위하여 소를 숲에 방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목을 금

하고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소를 숲에 방목할 경우에는 숲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유목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금하고 있다.

射山숲은 기본적으로 숲옆으로 난 길을 수반하는 형태로 아랫동각 길은 雁影洞¹³⁾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웃동각 옆길은 논로로서 이용된다. 이 두길이 있기 전에는 숲과 마을의 중앙부근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서 사산마을과 숲 그리고 입석부락이 일직선상에 있었다. 또한 이 중앙로 주변에는 약 800평 정도의 공터가 있어서 마을사람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숲과 마을이 함께 어울어진 中心空間의 役割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중앙부분은 경작지로 바뀌고 마을회관(70년대 조성) 부근이 마을과 인접한 中心空間으로 활용되면서 숲은 주변경작지의 休息空間의 性格만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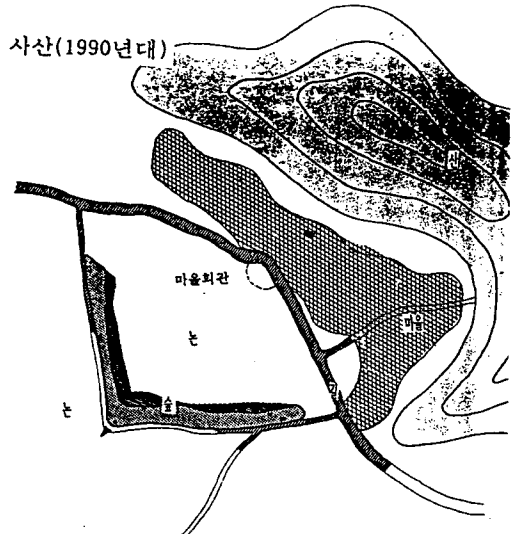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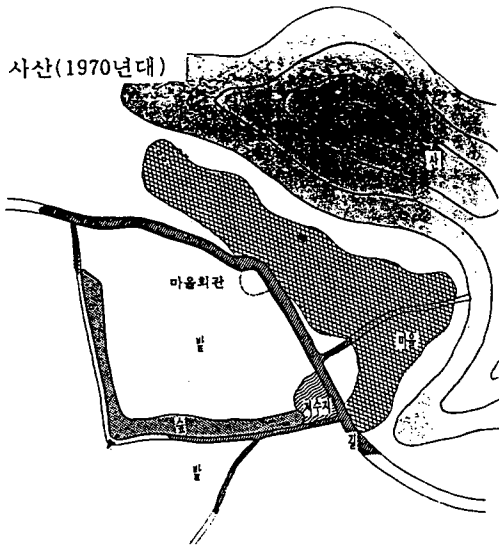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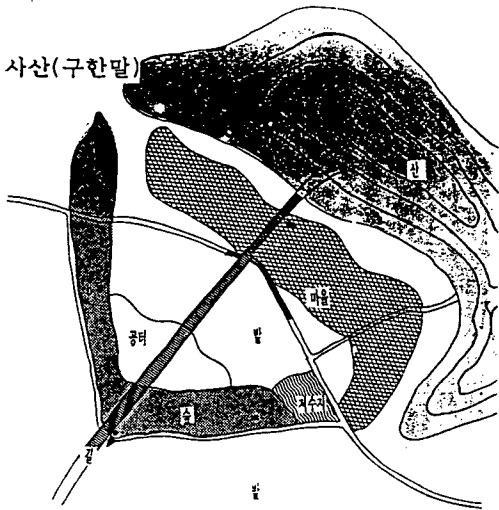
<그림 3>射山 숲 平面圖

13) 全南 咸平郡 羅山面 月奉里 安永부락. 오늘날에는 安永이란 명칭으로 漢字名을 바꾸어 쓰고 있으나 前의 부락명은 風水說의 刑局論의 名稱인 雁影이었다. 本文에서는 風水의 關係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용상 과거 명칭은 雁影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산숲은 정월 대보름에 洞祭를 지내는 祭禮場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사산숲의 변천을 통해 볼 때 중앙공터는 숲의 利用範圍를 결정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射山숲이 모든 마을사람들의 中心的 利用空間이었으나 현재는 그 일부이용만 수용하는 意味의 縮小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산숲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모든 나무들이 堂으로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일정한

무 두그루 만이 이 마을의 堂으로 모셔지고 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모셔지는 것은 마을내를 지키는 “안당산”과 바깥을 수호하는 “바깥당산”을 지명하여 한 가족처럼 마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안당산은 마을에 가까운 큰 고목중에 정한 나무가 선정되고 바깥당산은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나무가 선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당산의 선정과정도 信仰的 次元에서 이루어져 당산나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숲이 신성



<그림 4> 射山숲의 時代別 變遷

表-3. 射山畵의 時代別 園林景觀 意味의 變化

	物理的 構造	利用行態	文化的 意味
구한말 이전	성목 노목위주의 生態의 極上狀態 周邊 土地利用 밭, 공터, 길 등	다양한 利用行態 존속 - 祭禮的 利用 - 놀이적 이용 - 운동적 이용	風水의 意味(활형국)의 極上 園林의 意味가 가장 중요시 되던 시기 (畵과 마을의 운명을 동일시)
왜정시대	벌목으로 마을 원림이 사라짐. 周邊土地利用은 잔존	利用行態의 감소 - 놀이운동적 이용 격감	風水의 意味構造의 崩壞 (활형국의 활대가 없어짐) 마을의 쇠락
해방후- 1970년대	畵의 재조성: 유령목 (유목 및 묘목) 周邊 土地利用: 밭	利用行態 增加 - 제례, 운동, 놀이적 이용의 부활	風水의 意味의 再生 및 強化 활의 形局完成 마을의 재건
1900년대	30-40년생의 소령목 위주의 구조 周邊 土地利用: 논으로의 변화(수리여건의 변화)	利用行態의 減少 周邊 土地利用의 變化 (밭, 공터→논) 농촌사회의 構造의 變化	風水의 意味 弱化 (價値觀의 급격한 변화) 밭을과 畵의 關聯性이 서서히 약화됨

한 領域化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은 사람들이 숲까지를 마을경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堂祭祀 전에는 숲앞에 금줄을 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가 祭儀期間이 끝나면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들의 기억속에 숲의 祭禮的 意味는 잔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례적 의미를 통해 볼 때 사산숲에서는 숲을 신성시하는 의미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이 意味는 특히 “활형국”이라는 風水的 裨補林의 완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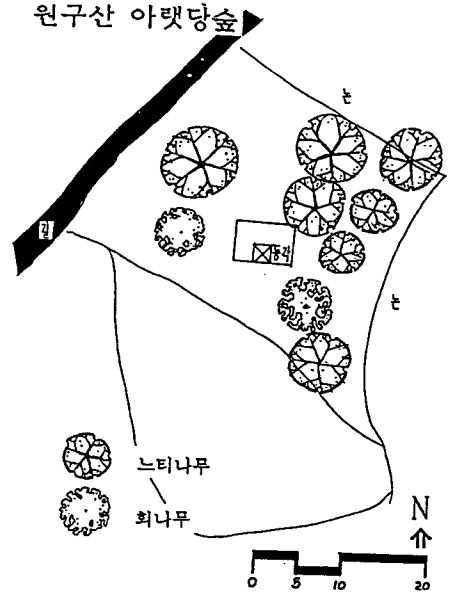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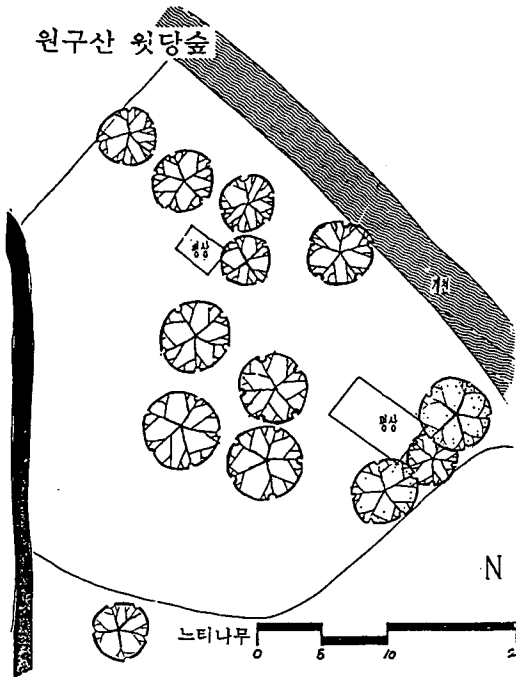
마을의 생김새는 활과 같은데 “활대는 있으나 활줄이 없어 활이 제구실을 못하니 마을이 크게 번창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해석하고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은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화살을 뜻하는 중앙로가 있었다고 하며 끝에 立石이 있고 그 방향이 宗家와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해 나온 것을 현재 불상사가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허니 우리 부락민이 다시 植木을 하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백년후에 과거와 같은 영광을 되찾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마을사람들이 지각하는 숲경관은 우리와는 다르게 숲의 垂直的 景觀에 활형국이라는 平面的인 景觀이 동시에 지각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나타난 숲경관이 그들의 운명과 함께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射山畵의 형태에서 활은 약 4Km떨어진 雁影洞 마을과 관련된 形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雁影은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러기가 날고 있는 形局으로 사산마을이 번창하고 안영이 쇠퇴하자, 안영 사람들은 사산의 활이 이 기러기를 겨냥한 형국으로 이 화살을 막기 위해 사산과 마주하는 기러기 형국의 목부근에 숲을 조성하였다. 이는 서로간의 解析差異에 따라 실제 숲이 조성된 사례로서 마을사람들에게는 이 숲의 건강을 바로 마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元九山

元九山 숲은 크게 윗숲과 아랫숲의 두개로 구성된 다. 위치적으로 아랫숲은 창고와 마을회관이 생기고 그 앞에 마을공동마당과 연결되면서 마을에서 公共的인 행사와 모임이 개최되는 中心的 空間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윗숲은 수변에 인접하여 어린이놀이터와 水邊休息空間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아랫숲은 마을 共同行事의 개최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윗숲은 89년 대홍수피해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수변이 높고 직선적으로 변형되어 접근이 어렵고 물의 깊이가 낮아 현재는 水邊利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元九山 숲은 3-4년전에 숲주변에 경지정리로 밭이 논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숲과 경



<그림 5>元九山 숲 平面圖

작자가 인접한 부분으로의 利用接近이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원구산의 두 숲은 각각 物理的으로 약간 다른 形態와 機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洞祭를 통하여 볼 때도 각각 다른 意味를 갖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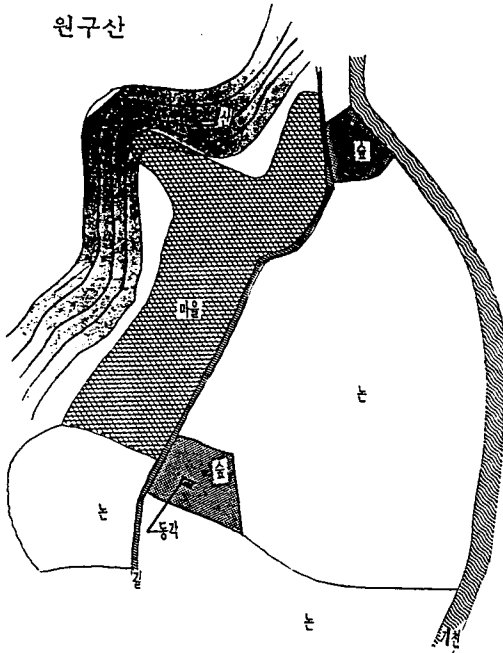
즉 地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윗숲과 아랫숲은 윗당산숲, 아랫당산숲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는 다시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의 意味를 갖기도 한다. 여기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마을을 지키는 象徴的인 守護神으로서 사람들은 마을내부 숲에 “할머니”가 마을외부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숲은 마을동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공간으로 이용된다. 宗教的으로도 원구산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같은 신교를 거의 믿지 않고 위와같은 숲의 土着信仰的인 祭禮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은 정월에 이 숲에서 한번 지내는 洞祭를 통하여 매년 숲의 象徴的 意味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이는 특히 祭를 드리는 方式이나 禁忌를 통해 직접 사람들이 숲에서 실천하게 됨으로써 숲이 갖고 있다고 믿는 精神的 靈驗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숲과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줄친다”는 形態上으로 숲나무밑에

간대를 연결하여 감아 領域을 표시하여 출입을 금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황토흙을 뿌리는 행위”는 주변에 잡귀의 접근을 막아 숲의 神聖함을 유지케하여 마을의 건강을 지킨다는 意味가 있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이지만 洞祭의 段階別 儀式을 통해 사람들은 숲과 동시에 마을을 神聖領域化하는데 이는 숲의 영험을 통해 그들의 祈福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랫숲에서 洞祭를 지내고 윗숲으로 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거의 윗숲과 아랫숲의 모든 나무를 돌며 厄을 쳐내고 당해의 새로운 福을 기원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구산 숲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람들의 祈福信仰的인 意味로 채워져서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깊은 장소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元九山의 당산은 그 形態나 位置는 다르더라도 숲이 갖고 있는 意味는 서로 유사한 二重的 構造와 脈絡내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숲이 갖는 의미는 사람들이 土着信仰的으로 그들 周邊環境을 이해하는 한 構成方式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실제 행동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유지하



<그림 6>元九山 金 現況圖

려는 의미라는 마을고유의 文化的 傳統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무시하는 경향이 높으나 실제로는 전국의 숲들에서 조사됐던 것처럼 뚜렷한 숲의 의미를 잘 유지하는 지역일수록 숲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法聖浦

법성포숲은 法聖鎭城(1514년)을 쌓을 적에 造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法聖浦를 둘러싸는 인의산의 앞쪽 산자락을 감아돌아가는 능선을 따라 길게 식재되어있다. 능선을 따라 고목들이 심겨 있어서 마치 城을 쌓은 듯한 形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능선을 따라 瓮성의 石城이 위치하고 있어서 성을 연장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현재 금주변에 위치한 주거지는 숲인접지역에 넓은 野地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차도를 경계로 동쪽의 법성리편 숲과 서쪽의 진내리편 숲으로 구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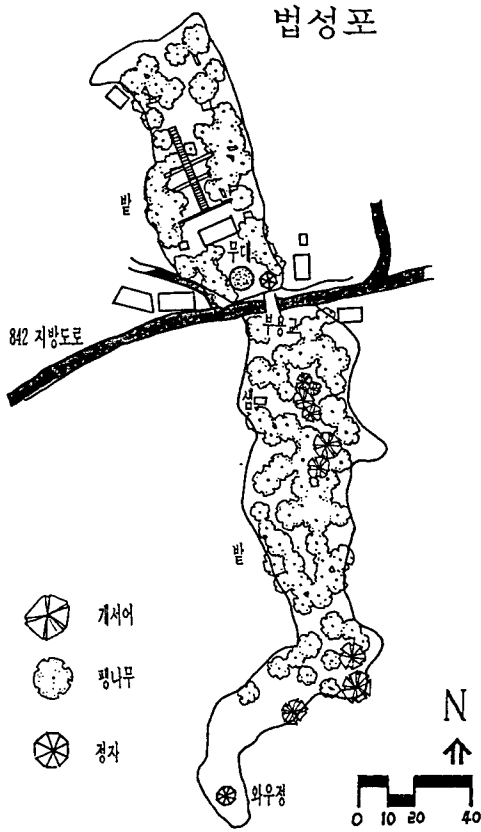
법성포숲은 그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利用이 이루어지는 숲으로 다른 숲들보다 공원식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숲내의 시설로는 1974년에 법성리에 “臥牛亭”을 짓고 7년전에 법성리와 진내리

숲을 연결하는 “芙蓉橋”를 놓았으며 진내리 숲편에 콘크리트 벤취(10년전), 씨름장(5년전), 콘크리트 무대(3년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법성숲은 위치적으로 겨울철에 불어오는 해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계절에는 주변지역 사람들의 피서지요, 여러가지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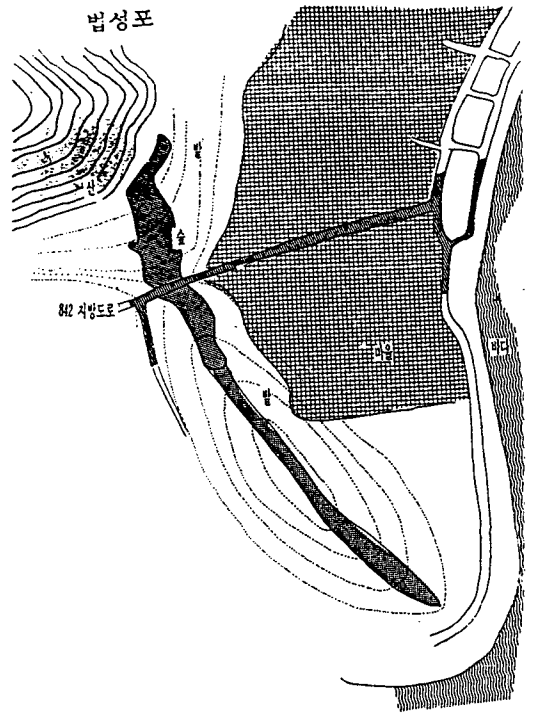
법성숲은 두개 뿔에 걸쳐있고 뿔마다 堂山나무를 갖고 있기때문에 차도를 경계로 접하는 매년 정월 洞祭時에는 鎭內里 堂山에서 法聖里 堂山으로 돌면서 지내게 된다. 여기서도 法聖里 堂山(안당산)은 숲과 마을의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실제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진내리 당산(바깥당산)은 숲과 마을의 끝에 위치하여 나름대로 안과 밖의 象徵的 意味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洞祭儀式이 축소되어 동제는 일부주민들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로 감소되었다.

風水學 法성숲의 形勢를 결정하는 인의산이 해면에 접하여 “臥牛形”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숲을 가로 지르는 차도가 난 후에 주민들은 이 다리가 있는 부근이 소의 배에 해당하는 부근으로 法聖의 主脈이 끊겨 법성에 해가 미친다고 믿어 양숲의 地形을 연결하는 芙蓉橋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 구름다리는 物理的으로 숲과 숲을 연결하는 機能을 갖고 있지만 이 보다는 象徵的으로 인의산 자락의 氣가 흐르는 龍으로서 숲과 숲, 산과 산, 법성리와 진내리의 意味的 連結를 통해 一體感을 이루는 표현인 것이다.

또한 예전부터 인의산은 명당중에 하나로 여겨서 “이곳에 墓를 쓰면 후에 좋다”고 하여 偷葬이 심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부터 비록 明堂일지라도 숲내로는 墓를 쓰지 못하게 하는 금기가 마을사람들 내에 전해져 내려와 심지어는 숲내의 개인땅에도 묘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전해진다. 외부인 뿐만 아니라 법성사람들 내에서도 이와같은 偷葬을 금기로 하고 있어서 가뭇이 농사가 안되거나 어업이 어려우면 법성사람들은 숲에서 행하여진 투장에 의한 것으로 믿어 “偷葬墓를 파내러 인의산의 숲쟁이 숲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여기서 묘를 쓰지 못하는 지역은 뚜렷한 境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주거지에서 숲사이의 상층부로 사람들의 이미지에 잔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에 묘소를 쓸 경우에는 하층에 주거지가 인접하여 物理的 또는 生態的으로도 影響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法聖浦 金 平面圖



<그림 8>法聖浦 金 現況圖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文化的 意味가 풍부한 마을원림에 대한 公園의 理解를 토대로 다양한 意味解釋을 시도한 것으로서 대상지의 마을원림속에 나타난 여러가지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마을園林景觀에 나타난 意味는 지역별 또는 의미성격별로 구분함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지역별 또는 의미별로 나타난 의미의 내용을 배경에 따라 儒敎, 風水, 土着信仰의 次元에서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儒敎의 背景下에 출현하는 里仁亭 숲은 集姓形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宗中, 氏族으로 구성된 血緣의 文化를 배경으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적 사회, 행사, 놀이 등의 상층문화적 형태가 개척되는 身分社會的 意味가 내재하고 있다. 특히 유교적 행사장

소의 목적하에서 조성된 이인정은 이러한 유교적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 완벽한 정원의 형태(정자, 연못, 원림, 섬, 재실, 비각 등)를 갖추고 있어서 儀式主導의 景觀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로 風水의 背景下에서 출현한 草浦里 射山마을의 마을원림은 풍수의 목적에 따라 形局補完의 意味完成으로 출현하였으며 이인정 주변과 마찬가지로 集姓形의 마을문화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집성부락에서 儒敎의 意味나 風水의 意味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풍수적 의미는 숲뿐만 아니라 주변의 景觀要素가 상호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血緣과 地緣의 文化가 결합된 배경을 갖게 된다. 특히 射山에서의 풍수적 의미는 마을의 주변요소는 물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들, 길 등까지 숲의 의미가 관련되어 같은 맥락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Macro적인 性格을 갖게 된다. 더욱이

表-4. 對象地의 意味

區分	物理·生態的 意味	利用·行態的 意味	文化的 意味
李仁亭	마을의 防風 마을과 외부와의 視覺의 遮蔽 마을 내부의 圍繞的 機能 宗中所有의 庭園 地城의 境界區分 주변보다 지형상 높은 위치	過去: 集姓部落(宗中) 儒敎의 利用(上流層의 利用) 定員, 祭禮, 놀이적 기능 현재: 급격한 毀損 및 利用減少 외부인 의 休養의 利用	儒敎의 意味 - 祖上崇拜 - 漢文文化(景觀詩) 地城의 境界(富와 賔) 傳統의 價値觀의 喪失
草浦里	마을의 防風 視覺的 境界 및 마을의 圍繞 마을의 物理的 境界 對向하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방향의 숲 형의 橫的 景觀 경지정리로 숲의 영역감소	集姓部落(宗中) 休養, 祭議, 놀이의 場所의 機能숲의 衰 退로 인하여 利用激減 土地利用變化로 利用空間의 分化숲이용의 統制 및 管理	形局補完의 意味完成 雁影마을과 對應的 意味숲과 마을 운명의 동일시 射形 地城의 境界(안과 밖)
元九山	두개의 숲으로 구성된 위치 마을내의 우세 적 景觀要素 點의 景觀을 形成	祭議의 利用性向이 強함 윗숲: 休養 및 놀이적 利用 아랫숲: 마을공동의 公의 利用 傳統의 利用의 維持傾向이 強함 마을의 중심적 이용공간	土着信仰의 意味 -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 산 - 守護神의 意味와 中心空間 - 숲의 靈驗
法聖浦	인의산 앞산자락의 숲(능선) 대규모의 園林 防風機能 및 境界標示 線形의 橫的 圍繞景觀	대규모 公共行爲 및 놀이적 利用 전통놀이의 特續의 維持 대규모 綠陰에 의한 주변의 休養慰樂의 欲求收容	法聖里堂山과 鎮內里堂山明堂 의 形局을 形成 웅성의 연장 臥牛形 地城의 境界(안과 밖)

사산에서는 對向하고 있는 雁影部落과 相互對應的인 風水의 意味가 형성되어 숲의 의미적 범위가 타마을에 까지 연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土着信仰이 마을원림 조성의 배경이 되고 있는 元九山의 마을원림은 두개의 兩性的의 形態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土着信仰의 意味를 갖고 있는 마을원림으로서 各姓部落으로 구성된 마을중심적인 地緣文化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원구산숲은 애니미즘적 土着文化에 바탕을 둔 마을을 수호하는 守護神으로 祈福信仰의 성스러운 대상으로서 天上과 地上을 연결하는 우주나무 또는 聖俗의 세계를 구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元九山의 마을원림은 이러한 토착신앙적 의미를 바탕으로 행하여지는 祭禮의 行態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들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숲내부의 具體的 行爲가 관련되는 Micro적 성격을 갖게되어 한마을이라는 地緣的 共同體意識을 구성하는 마을의 中心的 役割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원림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숲의 실체가 출현하고 계속하

여 그 原形을 유지하여 오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여왔다. 즉 숲에 존재하는 의미가 살아있음은 숲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숲의 의미가 사라짐은 숲의 건강이 쇠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적 구분으로 볼때 마을園林의 의미는 크게 마을원림의 物理的 次元과 精神的 次元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다시 本 研究에서는 物理·生態的 意味, 利用·行態的 意味 그리고 文化的 意味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숲의 物理·生態的 景觀은 숲내부 뿐만 아니라 숲주변의 土地利用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生態的 意味로 구성된다. 이 생태적 의미는 단층림의 고목들과 이용시설물이 놓인 표면 그리고 숲주변의 논이나 밭 또는 주거지와와 상호관계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本 事例地域에서는 숲주변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가 많아 숲주변의 생태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숲의 이용행태에서 놀이나 休養의 行態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는 우선 숲으로의 接近性과 숲과의 거리 그리고 숲내의 공터와 같은 Open Space와의 連繫性 등과 같은 숲의 物理的 次元과 關聯性이 높았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숲 주변 마을의 社會的 狀況도 숲이용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숲의 휴양적, 놀이적 행태와는 달리 숲의 祭禮的 行態는 숲의 물리적 차원보다는 숲주변의 社會的 狀況에 관련성이 높아 제례가 강하게 유지되는 숲일수록 숲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제례의식이 약한 숲은 이용이 퇴조하는 傾向을 나타낸다. 이는 제례가 주로 일시적인 행위를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적인 참여가 유도되어 년중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숲의 文化的 意味는 각 마을과 마을원림의 地域的 主題를 결정해주는 總體的 性格을 가지며 그 숲의 物理 生態的, 利用 行態的 意味를 포괄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숲의 文化的 意味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그 숲의 물리·생태적 의미와 이용·행태적 의미의 基礎위에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종합된 문화적 의미는 장기적인 숲경관을 유지해 주는 物理的, 精神의 統制力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을원림 景觀의 意味는 마을園林이라는 物理的 實體만이 아니라 그속에 내재한 어떤 概念인 것이다. 예를들어 마을원림은 마을앞에 樹帶를 형성하여 마을내에 있는 福을 얻고 마을밖에서 들어오는 災殃을 막고자 하는 象徴的 意味를 갖고 있으며, 이는 風水의으로 “수구를 막는다”는 숲의 象徴的 意味와 일치하는 意味인 것이다. 따라서 마을원림 景觀의 意味는 직접적으로 실제 물을 가두는 物理的 側面이 아니라 숲을 통해 느끼는 사람들의 心理的 效果로 사람들은 그들 숲의 의미를 강화하여 그들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강한 숲은 양호한 숲경관을 갖기가 쉽게 된다.

한편 사람들은 이와같은 마을원림 경관의미의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한다. 이 해석을 통하여 사람들은 숲경관의 물리적, 행태적, 문화적 의미가 각각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상호고리로 연결되어 이루는 未完成 合成體로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접하는 숲경관은 사람들이 그속에서 존재해온 실체의 한 표현방식으로서 숲경관은 이속에 존재한 의미들의

합성물을 통해 판단되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의 의미만으로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항상 다른 의미가 존재함으로써 그 의미가 처한 상대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마을원림 경관의 의미는 점차 時代的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上層의 意味를 형성하는 文化的 意味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공유의 의미에서 主觀的 意味로 축소되는 傾向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의 소멸은 숲경관의 視覺的 破壞나 減少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숲의 利用·行態變化에서 발견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미체계의 혼란은 물리적 의미→행태적 의미→문화적 의미로 이루어지는 意味位階의 역순을 따라 발생함으로써 根本的으로 마을원림 경관의 意味體系를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현대의 마을원림 경관의미는 마을사람들만의 의미이거나 소유될 수 없으며 외부사람들과 공유하는 시대적 흐름속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원림의 물리적, 행태적, 문화적 맥락에서 볼때 마을園林은 마을사람들과 외부방문객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이용되며 이는 상징적으로 마을내부문화와 외부문화가 함께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원림이 갖는 場所的 側面은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릴때 숲경관을 기억하는 경우나 대부분 외부방문객들이 처음으로 숲경관을 통해 마을경관을 인식하게 됨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마을원림 景觀에서 나타나는 意味體系의 붕괴는 마을원림 경관의 붕괴를 의미하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故鄉景觀”이라는 독특한 이미지의 소멸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적인 公園의 原形으로서 共同運命體的 次元에서 마을원림 景觀意味의 保存과 管理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훼손되어 가는 마을원림의 物理的 實體에 대한 保存措置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라져 가는 意味를 찾아 再構成 혹은 再生시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용해되어 있는 傳統施設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는 그 실체의 보존에 주력하기 보다 그속에 담겨 있는 象徴과 意味體系의 보존에 주안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方法일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이 규목(1988), 「도시와 상징」, 일지사.
2. 이 종원(1988)역,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아야베 쓰네오 엮음, 인간사 랑.
3. 정 동오(1988), 「전남의 조경문화」, 전남대 출판부, PP. 333-359.
4. 정 무웅(1990)역, 건축환경의 의미, A. Rapoport,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대광문화사.
5. A. Rapoport, *Human Aspects of Urban Form*, Pergamon Press.
6. DJ. Walmsley(1988), *Urban Living*,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7. Erwin Panofsky(1939), *Meaning in the Visual Arts*, Doubleday & Company Inc.
8. Geoffrey Broadent외 2인(1980), *Meaning and Behaviour in the Built Environment*, John Wiley & Sons.
9. James J. Gibson(1950), *The Perception of the Vesual World*, The Riverside Press
10. J Appleton(1977), *The Experience of Landscape*, John Wiely & Sons.
11. Jon Lang(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2. Martin Krampen(1991), "Environmental Meaning", Ervin H. Zube외 1인,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 3, Plenum Press.
13. R.J. Lawrence, "Structuralist Theories in E. B. Research", Ervin H. Zube외 1인,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 2, Plenum Press.
14. Relph Manheim(1955) transl.,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 1-3, Ernst Cassirer, Yale Univ. Press.
15. Seta M. Low, "Developments in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Ervin H. Zube외 1인,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 1, Plenum Press.
16. Yi-Fu Tuan, *Topophilia*, Prentice-Hall Inc.

논문 및 보고서

1. 광주일보(1986. 2. 26.), 영광 대마면 평금 당산제.
2. 구비문화대계, 전라남도 함평군편.
3. 김 학범(1992),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 김 용규(1989), "취락경관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5. 마을유래지(1989년), 함평군.
6. 영광군, 내고장 전통가꾸기.
7. 윤국병(1982), "정원의 해석", 「한국정원학회지」 Vol. 1, No. 1.
8. 이 명희(1989), "의미체계로서의 도시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9. 임 채철(1991), "벽계마을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경관해석",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0. 정계청(1988), 우득록, 전라남도.
11. 장 동수(1991), "전통마을 한밤(대울)경관의 의미해석",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2. 함평군(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